

피와 땀은 물보다 진하다

5월의 따스한 햇살, 시원한 바람과 함께 운동을 시작하거나 열심히 훈련하는 학우들이 많다. 그렇다면 누구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가? 한국체대 학우 중 최고의 운동 파트너와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학우에게 파트너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들은 파트너에 대해 나와 오랫동안 지켜본, 나와 많이 닮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바로 가족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박정윤 수습기자 junung88@naver.com

노윤주 학우(사회체육 23) “렐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가족의 대화”



사회체육 노윤주 학우(왼쪽 두 번째)와 학우 가족

Q. 누가 제안해서 가족 스포츠 활동이 시작된 것인지, 또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 노윤주 학우 아버지(이하 ‘부’): 결혼 전부터 동아리나 회사에서 하는 스포츠 활동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운동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함께 하지 못한 대화를 주말에 운동하면서 함께하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습니

A. 노윤주 학우(이하 ‘노’): 운동을 같이하기 시작한 시점은 제가 4살 때부터 아버지의 조기축구에 따라갔던 것부터입니다. 저와 남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다른 것보다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아버지를 따라 스포츠를 즐겼 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운동하고 있습니다. 축구로 시작했지만, 탁구나 농

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을 해왔고 요즘은 주기적으로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Q.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끔 다툼이 있을 때도 해결하는 과정이 원활한 것 같습니다.

A. 부: 딸이 중학교 때 사춘기가 오면서 멀어질 뻔했지만, 같이 조기축구를 나가면 서 그 시기가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통점을 만들고 대화를 이어 나가기 때문에 사춘기 때 부모님이 갑자기 친절하게 말을 걸어온다던가, 너무 엄하게 혼을 낸다고 딸이 느끼지 않도록 했 습니다.

노: 맞습니다. 가끔 다툼이 있긴 하지만 다툼 후의 서먹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운동

으로 말을 트기 시작합니다. 같이 땀 흘리며 운동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다고 느낍니다. 또 편을 나누어 경기 내기를 해서 저녁 메뉴를 정하거나 가사를 분담합니다. 정당하게 경기로 정하기 때문에 의견차이나 가사 일로 싸울만한 요소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Q. 가족 중 운동능력은 내가 최고다!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A. 노: 아무래도 한국체대에 재학 중인 제가 아닐까요? 체대 입시를 거쳐 체력을 다졌고 현재 축구 동아리에서 꾸준히 운동하며 축구 기술도 배우니까 지금으로서는 제가 제일 운동능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 동의하지 않습니다.(웃음) 딸의 운동 유전자는 저에게서 왔습니다. 딸이 지금 젊기 때문에 운동능력이 좋을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꾸준히 운동해서 운동능력을 유지하는 저에게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기하면 노하우를 가진 제가 이길 때가 많습니다.

노: 아버지께서 “모든 종목의 국가대표는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운동능력이 좋으신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물려받은 유전자를 잘 활용하고 훈련한 제가 더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Q. 노윤주 학우는 어떤 딸인가요? 그리고 학우에게 부모님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부: 크게 말쑥 피운 적 없이 잘 커준 고마운 딸입니다. 함께한 가족 스포츠 속에서 본인의 적성을 찾아내어 한국체대에 진학한

것을 보면 기특합니다. 앞으로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해서 딸이 좋아하는 진로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 나갔으면 합니다.

노: 아버지는 운동에 대한 즐거움을 심어주시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하고 싶은 것에 의심 없이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기적으로 다 같이 운동하면서 소통의 창구를 계속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부모님은 무한 감사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Q. 혼자 하는 스포츠와 가족과 함께하는

스포츠 각각 어떤 매력과 장점이 있나요?

A. 노: 동아리에서 운동하거나 개인적으로 운동을 할 때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운동에서 편안함과 기쁨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특점임에도 나의 일처럼 기뻐주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맞춰나가는 그런 편안함이 가족 스포츠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우분들도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실내 운동들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가족과 같이하기 좋으니, 가족들과 함께 해 보셨으면 합니다.

To. 부모님께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 윤주예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엄청 오랜만인 것 같네요.

약간 오글거리는 거 같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한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편지를 쓰나 싶기도 하네요. 우선 21년 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던, 운동하면서 놀기만 하던 아이였는데 벌써 이렇게 대학생이 되었네요. 재수할 때도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늘 하고 싶은 거 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늘 감사합니다.

김수연(노인체육복지 22)·김하연(스포츠산업 22) 학우 “가장 사랑하는 나의 경쟁자”



김하연(좌), 김수연(우) 학우가 FC천마 경기 직전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Q. 쌍둥이가 같은 학교에 같은 학번으로 입학하니 정말 멋있습니

A. 김하연 학우(이하 ‘하’): 처음에는 할머니께서 저희의 소심한 성격을 걱정하셔서 6살에 태권도장에 보내셨어요. 이것이 운동의 흥미를 돋게 해서 한국체대 입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김수연(이하 ‘수’): 사실 체대 진학을 결정한 건 제가 먼저였습니다. 체대 진학이 어떨 것 같는지 고민 상담을 하면서 마음먹던 중, 하연이도 듣다 보니 본인도 체대 진학을 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같은 학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마음먹기 시작하면 다른 한 사람도 옆에서 같이 하게 되는 게 많습니다.

Q. 같은 축구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기에 함께 하는 축구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A. 하: 교류전에 나가거나 대회를 나갈 때 수연이와 같은 팀이기 때문에 우승하거나 득점했을 때 더 기쁩니다. 만약 경기에서 지더라도 서로 같은 감정을 나누면서 축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수: 같이 집에 가면서 경기했던 영상을 보며 솔직하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것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이자 가족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피드백하며 칭찬하고 조언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워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진지하게 듣고 고칠 점을 생각하기도 하고, 칭찬받더라도 너무 들뜨지 않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Q. 사실 저는 멀리서 수연, 하연 학우를 마주치면 헛갈립니다. 닮은 외모로 생긴 일화가 있나요?

A. 수: 각자 학과 점퍼를 입지 않고 온 날에는 평소보다 많은 학우와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연이가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저도 학우분도 민망하니까 인사를 건네주시는 학우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 축구 동아리에서 다른 대학과 교류전을 할 때 상대 팀이 헛갈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분신술처럼 상대편을 교란해 보라고 농담하실 때가 있습니다.

Q. 이것만큼은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축구 기술과 서로에게서 땀어오고 싶은 감정이 궁금합니다.

A. 수: 킥에 약점이 있어서 연습을 많이 했더니 요즘은 킥을 차는 기술과 힘이 하연이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연이의 센스 있는 패스 능력을 땀어오고 싶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보고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까지 보고 패스하는 능력이 부럽습니다.

하: 저를 뛰어넘는 킥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훈련과 보조 운동도 열심히 해서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 저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연이는 수비수로서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버티는 힘은 인정합니다. 이런 힘은 땀어오고 싶습니다.

Q. 학창 시절 특히 입시 때에는 같이 체육 계열에 진학하려는 서로에게 의지가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A. 하: 의지보다는 경쟁을 했습니다. 서로

의지하기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쟁이어서 결과는 성공적으로 같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체대에 같이 가자는 것은 아니었지만, 입시 결과의 1지망이 한국체대로 결정되어 같은 학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수: 그래도 입학 후에는 의지합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속마음을 말하기보다는 둘이 있을 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또, 잘못했거나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으면 단호하게 따끔한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이지만 친구로서 성격도 정말 잘 맞아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To. 할머니, 엄마, 아빠께

할머니, 엄마, 아빠! 저희 수연이, 하연이예요.

평소에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편지로 써보려고 해요.

부모님 덕분에 어느덧 성인이 되고 한국체대에 같이 입학해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 저희가 짜증내고 그래도 항상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죠?

앞으로도 우리 가족 더 사랑하고 더 잘하는 쌍둥이가 될게요. 기대해주세요!!

기자생각

매년 가정의 달이 되면 형식적으로 가족을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하거나 얼굴도 장을 찍는 것 같다고 느껴져서 죄송하고 아쉽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가족 스포츠를 하는 학우들을 인터뷰하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결속은 큰 의미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하고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처럼 자주 대화하고 운동하며 서로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기자 본인도 가정의 달을 핑계로 주기적인 가족 스포츠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학우들도 실천해 보기 바란다.